

# 사라진 외식, 문 닫은 미술관, 무너진 지역경제

## 코로나 1년 변화상

학생들 1년간 언택트 비정상 수업  
상가 매출 폭... 얼어붙은 지역경제  
광주·전남 가계대출 73% 급증  
청년 고용절벽... 늘어나는 실업자  
직격탄 맞은 문화예술계도 '비틀'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일상생활이 됐고 방역 마스크는 1순위 생활 필수품으로 등극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거나 마비되면서 지역경제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영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업을 접는 영세상인들이 속출하고 중견기업들도 매출하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대면이 필수적인 문화예술계는 각종 공연·전시 취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1년간 광주·전남의 변화상을 돌아본다.

◇비대면-거리두기 일상화=코로나19 사태가 1년 동안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 일상화라는 초유의 환경을 맞게 됐다. 이른바 'K-방역'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명부 작성은 생활 규범이 된 지 오래다. 일상이 갑작스럽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시민 대부분이 부적응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고통스런 생활을 이어갔다.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회사와 외식문화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과의 일상도 비대면 모드로 전환됐다. 지난 추석에는 고향을 찾는 발걸음까지 줄어들었다. 학생들도 힘든 1년을 보냈다. 등교는 미뤄지고 언택트 수업에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유래 없는 12월 수능이라는 상황까지 몰렸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회 곳곳의 취약 분야에 공백이 발생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공포에서 더 큰 고통과 싸워나가야 했다. 겨울 한파에 노숙자가 사망하는 등 사회 복지 안전망 점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비정상적 지역경제=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지역의 주력 산업은 코로나 여파에 수출이 급감했고,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각 가정의 가계대출은 끝없이 늘어만 가고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지난해 총 수출액은 270억7900만 달러로 전년(325억8700만 달러) 대비 16.9%나 감소했다. 전남의 주력 수출품인 석유화학 제품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송수요가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전남의 '원료 및 연료' 품목 수출은 지난해 83억 8887만4000달러로 전년(126억7433만 달러)에 비해 무려 33.81%나 급감했고, 화공품 역시 126억 0539만9000달러에서 110억5520만 달러로 12.3%나 줄었다.

여기에 지역 주요 상권의 매출도 25%이상 줄었다. KB 상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장성로·상무지구·수원지구·중흥동·광천동 등 광주지역 주요 상권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점포 3465곳의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25.8% (33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간 이들 상권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만 178개에 달한다.

주요 산업과 자영업계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부딪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20~30대 취업자는 광주 1만1000명, 전남 9000명 등으로, 전년보다 무려 2만명 줄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극성을 부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광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광주에서 1만2000명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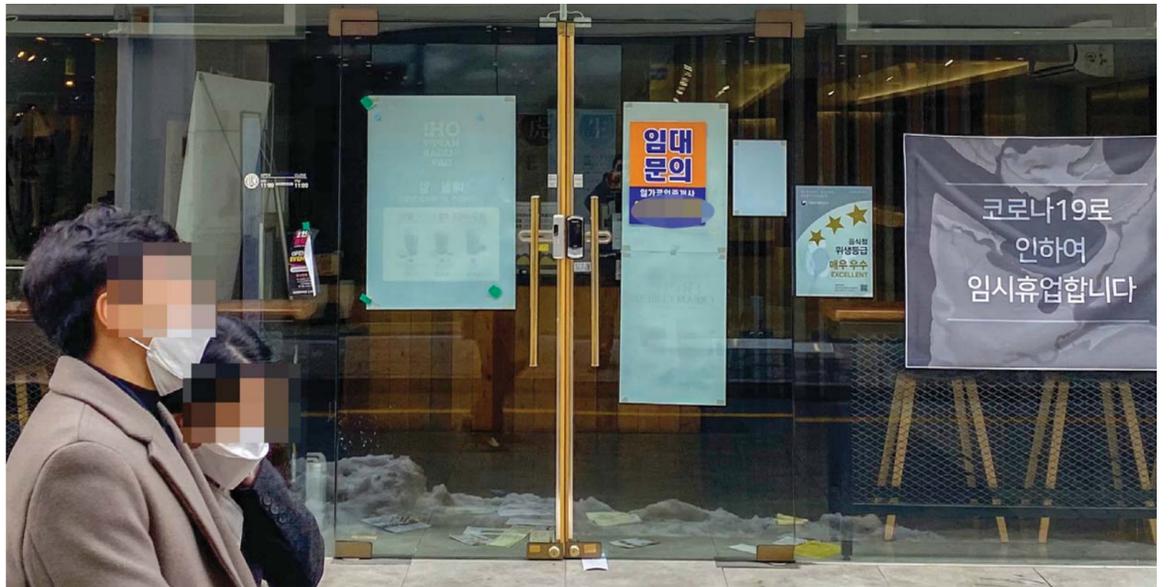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의 증가다. 일자리와 함께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7~9월) 광주·전남 가계대출액은 1조4859억원으로, 1년 전 보다 무려 73.6% (6298억원)나 급증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자 서민들은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민간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량(코스피·코스닥 합산)은 18억1777만주로, 1년 전(3억7799만주) 보다 무려 4.8배(380.9%) 뛰었다. 같은 기간 주식 거래대금은 19조8815억원이었는데, 전년보다 9.1배(809.2%) 급증했다. 개인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현상이 벌어진다든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계 직격탄=문화계 또한 대다수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ACC(아시아문화전당), 박물관을 비롯해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기관은 휴관에 들어갔으며 계획된 공연과 전시, 강연 등이 관객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았다. 문화예술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또한 영화관을 찾은 관객도 부쩍 줄었으며 신작 개봉도 연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반면 극장가에는 영화 재개봉 열풍이 부는 등 나름의 돌파구를 찾기도 했다.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튜브·Zoom 등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유스퀘어 문화관은 각각 유튜브 채널인 '안방예술극장', '유스퀘어 클래식' 등 통해 공연을 송출했으며 국립광주박물관, 광주 시립미술관 또한 비대면 전시를 개설했다. 아울러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으며 지역 도서관들은 '북드라이브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은재 기자 ej621@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지 20일로 1년이 됐다. 집 밖으로 나가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배달 중심으로 외식산업이 바뀌는 등 시민들의 일상도 크게 변했다. 19일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매장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지자체 재난지원금 긍정 평가...문 대통령 신년회견에 힘 받은 이재명

각종 여론조사도 선두 굳히기  
여당 의원들과 접촉면 늘려  
이낙연은 사면론 한 발 물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선을 그고,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가 나오고 있다. 사면론을 첫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난처한 상황이 됐다. 반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관련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정부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유스퀘어 문화관은 지자체에서 맡아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혀,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이 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선두 자리를 굳혀가자 여론 내에서 '무계 추'가 흔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른바 '공관 정치'로 의원들과 접촉면을 대폭 늘리는 모습이다.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철승·김철민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철승 김철민·소병훈·정준숙·민병덕·양기대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이 지난 18일 경기도 지사 공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서와 정책당정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기념 촬영을 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다섯 번째)와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소병훈·정준숙·민병덕·양기대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7명은 지난 18일 경기지사 공관에서 정책 당정회의를 가졌다. 박정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경기도와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도당과 광역단체장의 정례 당정회의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이 지사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비공개적으로도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당 지도부는 취약·피해계층 선별 지원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별로

판단하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의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것으로, 대통령 기자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 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